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강화

전북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 말까지 배출오염원 집중단속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 배출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이 함께 참여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동안 전라북도, 14개 시·군·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공시설, 산업, 교통(도로), 생활 등 4개 분야별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

행한 바 있다.

결과로는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2020.12~2021.3) 대비 4% 감소(제2차 24.6 μ g/m³→제3차 23.6 μ g/m³)하고, '좋음' 발생 일수도 37% 증가(30→41일)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제3차 23.3 μ g/m³)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회 미세먼지 체감농도 개선을 위해 배출오염원에 대한 강화된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공공, 산업, 수송, 생활부문에서 미세먼지 유발 배출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한 공공사업장(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강화된 배출허용 농도기준 적용, 방지시설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등 감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산업분야에는 중점관리 산업단지(21개소)를 선정해 드론·이동측정차량·굴뚝원격감시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민간 드론훈회·지자체 등과 불법배출행위 합동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수송분야 대책으로, 중부권 대기관리관역(전주, 군산, 익산시)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57개소),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협약 민간공사장(12개소)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 생활분야는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영농부산물,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생활속 체감농도 저감을 위해 도심내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38개소, 159.0km, 1일 3회 이상), 차량속도 제한(30~50km/hr)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전북도, 14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30일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참석한 '전북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별로 세부 이행과제와 저감대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농촌폐기물 태우지 않기, 1회용품 줄이기, 무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일상생활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태 기자



'도민과 소통' 강화 현장행정 시동

전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 보고·역량 강화 교육

"생생한 목소리로 전북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전북도가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에는 14개 시군 100여 명의 민원모니터가 참여한 가운데 제안·제보 활동 우수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그동안의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와 법무부 민원통합망 관리체계에 대한 직무교육도 이뤄졌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어 앞으로 강화될 현장 행정 계획 소개와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은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통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원활하면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전자민원모니터는 일상생활속 불편사항 제보부터 도정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 2월 위촉된 모니터들은 지금까지 180여 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펼쳤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본격 지급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

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한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이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a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a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임실 사선대·오수의견 관광지 '누구나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게'

전북 임실군 사선대 관광지와 오수의견 관광지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임실군 사선대 관광지, 오수의견 관광지가 선정돼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문체부 '열린 관광지' 선정... 국비 5억원 확보·투자
기존 관광지 개선·보수·체험형 콘텐츠 개발 계획

거뒀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정책이다.

지난 8월 공모계획 발표 후 서면

심사·현장평가 등을 거쳐 전국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이 최종 선정됐다.

임실군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 한 후 사선대 관광지, 오수의견 관광지 등 2개 지점에 10억원(국 5억, 군 5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내판, 무장애

진입로를 설치해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 불편과 활동 제약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변모 예정이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장애 진입로 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린관광지 간 연계 활성화와 관광지 매력도를 높여 함께 향유하는 흥만한 열린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도내 응급의료기관 21개소 참여·내년 2월까지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4개 시군 및 응급의료기관 21개소와 함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도민의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취약된 정보는 매일 16시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올려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특별점검

전북도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최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전 북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3개사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10년 부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 도입하여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도내 3개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산불진화, 예방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임차헬기들은 국토부서울지방

항공청 안전과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노후화된 헬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북부산악권을 담당할 헬기가 양양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제작된 지 45년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북도는 다음달 2일까지 임차 헬기를 대상으로 탑재용 항공일지 점검, 종사자 근무 여건 안전교육 이수 현황,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어려강한수협
어려문되는수산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www.gunsan-suhup.co.kr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